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간호학석사 학위논문

문제 음주 여대생의  
음주 특성과 절주 의도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전공  
이 옥 의



# 문제 음주 여대생의 음주특성과 절주 의도

지도교수 이 인 숙

이 논문을 간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전공

이 옥 의

이옥의의 간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위 원 장 윤순영   
부위원장 방경숙   
위 원 이인숙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문제 음주 여대생의 음주 특성 및 절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문제 음주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절주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절주 의도이며, 일반적 특성과 음주동기, 태도 신념, 사회규범적 인식, 조정능력 인식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4개 대학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444명 가운데 AUDIT점수 6점 이상자 233명을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1월부터 4월 초까지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음주 특성을 평균과 표준편차, 백분율로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음주 특성이 절주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유의한 변수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본 연구 조사 대상자의 AUDIT점수를 WHO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점수별 위험 수준으로 분류한 결과 위험음주(hazardous drinking)자가 가장 많은 75.1%를 차지하였고, 위해음주(harmful drinking)수준은 11.2%였으며, 알코올 의존(alcohol dependence) 수준은 13.7%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문제 음주 여대생의 절주 의도 점수는 최저 -3점에서 최고 +3점 범위에서 0.05점(SD=1.90)으로 평균적으로는 절주에 대해 중립적 입장이었다.
2. 문제 음주 여대생의 음주동기는 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향이 강한 사고 동기(M=3.55, SD=.816)와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거나 제어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향이 강한 대처 동기(M=2.75, SD=.986)로 확인되었다.

3. 절주 의도와 상관관계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에서는 학년( $r=.130, p <.05$ )과 친구의 음주횟수( $r=-.208, p <.01$ )이었으며, 음주 특성에서 유의한 변수는 AUDIT( $r=-.253, p <.01$ )와 음주동기 중에서 고양 동기( $r=-.287, p <.01$ ), 대처 동기 ( $r=-.259, p <.01$ ), 사교 동기 ( $r=-.156, p <.05$ )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절주 찬성에 대한 사회 규범적 인식 ( $r=.223, p <.01$ )과 사회 규범적 인식의 순응 동기 ( $r=.131, p <.05$ ), 절주 찬성과 순응 동기의 곱( $r=.132, p <.05$ ), 그리고 조정능력 인식( $r=.380, p <.01$ )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4. 절주 의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회귀 분석한 결과 지각된 조절 능력 인식의 회귀계수( $\beta=.363, t=5.940, p <.001$ )가 가장 컸으며, 사회 규범적 인식의 절주 찬성( $\beta=.221, t=3.712, p <.001$ )과, 친구의 음주 횟수( $\beta=-.132, t=2.163, p <.05$ )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문제 음주 여대생이 절주 의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음주 조정능력에 대한 인식 증진과 주변의 가까운 사람의 절주에 대한 지지, 그리고 또래 친구의 술 마시는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음주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바뀌어야 하며, 올바른 음주 교육이 조기에 실시되어 음주의 위해성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음주 교육을 실시할 경우 문제 음주 여대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 내용과 이들을 둘러싼 주변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폭 넓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문제 음주 여대생, 음주동기, 절주 의도

**학 번** : 2011- 20473

# 목 차

국문초록 .....	i
<b>I. 서론 .....</b>	<b>1</b>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3
3. 용어의 정의 .....	3
<b>II. 문헌고찰 .....</b>	<b>6</b>
1. 대학생 음주행위의 성별차이 .....	6
2. 문제 음주 행태 .....	8
3. 음주동기 .....	9
4. 절주행위에 미치는 변수 .....	11
<b>III. 개념적 기틀 .....</b>	<b>14</b>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	14
<b>IV. 연구방법 .....</b>	<b>15</b>
1. 연구 설계 .....	15
2. 연구 대상 .....	15
3. 연구 도구 .....	16
4. 자료 수집 및 절차 .....	20
5. 자료 분석 .....	21



V. 연구 결과 .....	22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2
2. 대상자의 음주관련 특성 .....	25
3. 절주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	30
VI. 논의 .....	34
1. 문제 음주 여대생의 음주 특성 .....	34
2. 절주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	36
3.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	39
VII. 결론 및 제언 .....	41
1. 결론 .....	41
2. 제언 .....	43
참고문헌 .....	44
부록 .....	52
Abstract .....	59

## List of Tabl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	24
Table 2. The AUDIT Cut-off Score .....	25
Table 3. Characteristics of AUDIT .....	25
Table 4. Characteristics of Drinking Motives .....	26
Table 5. Characteristics of Attitude, Social pressure, Perceived self-control .....	28
Table 6. Intension to Drink Moderately .....	29
Table 7. Correlations Intension to Drink Moderately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	30
Table 8. Correlations Intension to Drink Moderately with Drinking Characteristic .....	31
Table 9. Test of Normality Characteristics .....	32
Table 10. Multiple Regression of Intension to Drink Moderately .....	33

## List of Figure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	14
Figure 2. Sampling procedure .....	20
Figure 3. Standardized residual Q – Q plot .....	32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음주는 건강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위험요소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화적 문제를 통제하고자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음주행태는 다른 인생주기에 비해 과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동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더 많은 음주량을 보이고 있어 반드시 통제해야 할 문제이다(O'Malley & Johnston, 2002).

최근에는 여성 음주가 일반화되어 젊은 여성들 특히 여대생의 음주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성의 높은 음주율은 여러 가지 위험을 야기하는데, 여성의 경우 수분이 적고 체지방이 많아 같은 양의 술을 마신 남성보다 신체적 손상을 더 많이 입을 수 있으며, 유방암의 경우 음주 여성의 유병률이 비음주 여성보다 4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상태에서는 성폭행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Gomberg, 1991; Sarigiani, Ryan, & Peterson, 1999; Kendler, Myers, Maes, & Keyes, 2011; National Institute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2012).

하지만 여대생의 음주는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20대 여성의 음주율은 최근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인 월간 음주율이 52.1%로 나타났으나(국민건강영양조사, 2011), 여대생의 연간 음주율은 93.7%로 성인 여성의 83.8% 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음주문화센터, 2011). 이처럼 여대생의 높은 음주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수준에 있는 문제 음주 여대생을 대상으로 절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 음주를 하는 여대생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다가가 이들을 건강 음주 수준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이들이 음주를 하게 되는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음주처럼 습관적이거나 의지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행동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념을 형성하는 기제와 동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심성욱, 이진우, 손형곤, 2005). 이러한 측면에서 음주동기는 문제 음주 여대생의 음주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음주동기는 음주량과 음주 결과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므로(신행우, 1999; 김인석 & 이연희, 2003; 심성욱 외, 2009) 문제 음주 여대생의 음주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관심사인 절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복잡한 사회적 행위를 예측하고, 건강 행위를 설명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하위 변수를 이용하여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변수를 태도 신념과 사회 규범적 인식, 그리고 조정능력 인식으로 변경하여 이들이 절주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한다. 절주 의도는 절주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일차적 단계이므로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 음주 여대생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을 통하여 이들의 음주 행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다른 여대생의 음주 행동과 음주 의도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문제 음주 여대생의 음주 행태, 음주동기 그리고 절주 의도를 함께 조사하여 이들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하며, 음주에 미치는 주변인물을 친구나 선후배에서 가족과 남자 친구까지 역학적으로 확대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점점 심각해지는 여대생의 문제 음주를 해결하고 문제 음주자가 건강 음주자로 변화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제 음주 여대생의 음주 특성을 파악하고 절주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문제 음주 여대생의 올바른 음주 문화를 위한 교육에 사용될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여대생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목적

문제 음주 여대생의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문제 음주 여대생의 절주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문제 음주 여대생의 음주 특성을 파악한다.
- 2) 문제 음주 여대생의 절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 3. 용어정의

### 1) 정상음주

NIAAA(2005)에서는 하루 표준 1.5잔(알코올 20g)이내인 경우를 의미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이정길, 김종성, 정진규, 최태근, & 유영일 (2011)이 수정한 AUDIT로 측정한 점수가 6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문제 음주

NIAAA(2005)에서는 하루 표준 3잔 이상(알코올 40g)이상이거나 또는 일주일에 7잔을 초과하여 마시는 경우를 문제 음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정길 외 (2011)이 수정한 AUDIT로 측정한 점수가 6점 이상인 경우를 문제 음주로 판단한다.

### 3) 음주동기

동기란 개인이 바라는 욕구를 성취하고자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다(Cox & Klinger, 1988). 본 연구에서는 Cox와

Klinger(1988)의 분류에 따라 신행우(1999)가 개발한 도구로 네 가지 동기로 이루어져있다. 고양 동기는 긍정적인 기분이나 편안함을 높이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며, 대처 동기는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제어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고, 사교 동기는 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동조 동기는 사회적 비난이나 타인의 거부를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을 뜻한다. 각각의 동기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의 상황에서 술을 마실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태도 신념

특정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결과에 대한 기대이며(Azjen & Fishbein, 1975), 본 연구에서는 유혜라(2000)의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일반적 가치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절주 의도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 5) 사회 규범적 인식

문제가 되는 행동을 수행할 것인지 수행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인식하는 것과 압력에 대한 순응 동기이며(Azen & Driver, 1991), 본 연구에서는 유혜라(2000)의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인의 영향력 즉 절주 찬성을 대상자가 인지하는 것과 그들의 의견에 따를 순응 동기를 각각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절주 찬성 인지도와 순응 동기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 6) 조정능력 인식

지각된 행위통제는 주어진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능력 평가 (Azen & Driver, 1991)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조정 능력 인식으로 변경하여 절주행위가 수행하기 쉬운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유혜라(2000)의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음주에 대한 조절능력으로 환경적 조건에 대해서 절주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정능력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 7) 절주 의도

의도란 특정행위 수행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려는 지에 대한 의사이며 (Azen & Driver, 1991), 절주(moderate drinking or low-risk drinking)는 과음과 폭음의 반대 의미로 건강에 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음주를 말하며, 하루 알코올 20g 이하 섭취와 주 2회 이내 음주를 의미한다. 금주(ceasing drinking)는 알코올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을 뜻한다(NIAAA, 2005). 본 연구에서는 유혜라(2000)의 도구를 이용하여 절주 의도를 측정하였는데 ‘한 달 내에 절주를 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절주 의도가 강한 것으로 판단한다.



## II. 문헌고찰

### 1. 대학생의 음주행위

우리나라의 경우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집단은 대학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음주관련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고유미 & 현명호, 2009). 대학이라는 공간은 음주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한다(Anderson, Johnson, Berglund, & Ojehagen, 2007). 예컨대 신입생 환영회나 동아리 모임, MT 등 각종 행사는 과음으로 인한 사망자와 사고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되어왔다(천성수, 이주열, 이용표, & 송창호, 2002).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로 이 시기의 음주양상을 보면 성인기의 음주습관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음주습관이 중요하다.

음주는 세계 공통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대학생의 경우 83%가 술을 마시고, 41%는 폭음(binge drinking)을 하며 30~40%가 대학 캠퍼스 내에서 문제성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uettner, Andrews, & Glassman, 2009; Pauley & Hesse, 2009). 영국 대학생의 경우도 남학생의 39.6%와 여학생의 35.9%가 폭음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이라는 사회에서 사람을 만나 사귀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사교의 목적으로 음주를 하는 대학생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대학생의 폭음 또한 증가하였다(Jamison & Myers, 2008; 정슬기, 2006).

한국음주문화센터(2011)의 자료에 의하면 대학생의 음주빈도에서 남녀 모두 한 달에 2~4회 마시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의 42.4%와 남학생의 45.7%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음주량에서 여학생은 5~6잔이 가장 많은 25.4%인 반면 남학생은 10잔 이상이 35.4%를 보여 남학생의 높은 음주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또한 음주시기에서 여학생의 22.0%와 남학생의 19.5%가 고3때 음주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여학생의 음주 시작 시기가 더 빠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결국, 중고등학교부터 음주교육이 시작되어야 잘못된 음주를 시작하는 학

생을 줄일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된다.

여성 음주율의 증가를 살펴보면 20대 여성의 음주율이 1999년 76.2%에서 2006년 85.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여대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대생의 문제 음주율이 남학생보다 높다는 사실을 결부시켜 본다면 여대생의 음주문제는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다(심성욱 외, 2009; 이미형, 2009).

정서적 측면에서는 우울과 스트레스는 여대생 음주행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은 여대생은 정서 중심 대처 행위로 음주를 하였으며, 알코올 중독과 우울이 혼동되어 나타나기도 했다(Gomberg, 1991; 한금선, 양승희, & 전경구, 2003).

환경적 측면에서 여대생 문제 음주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족의 음주력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 중 음주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학습에 의해 음주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고, 음주를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와 대인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일수록 문제 음주를 하는 경향이 높았다(서경현, 김성민, & 정구철, 2006; 이순희 & 정승은, 2011). 여대생은 또래들로부터 사회적 인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또래들의 사회적 기대가 있을 경우 이에 순응하기 위해 자신의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시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심성욱 외, 2009). 그리고 용돈이 많은 학생에서 문제 음주를 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것은 술값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경우 친구와 만남의 횟수가 늘어 음주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대생의 경우 학년보다는 연령이 많을수록 음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정 & 탁진국, 1998; 김희경, 최은숙, & 안정선, 2004). 점점 높아지는 여대생 문제 음주는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적 요인과 적절한 음주관련 교육의 부재도 큰 역할을 한다(심성욱 외, 2009; 이미형, 2009).

대학생은 흡연에 비해 음주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매우 둔감했다. 그 이유는 음주의 위해성에 대하여 무지하고, 음주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조기 음주교육이 필요함을 내포한다(이선영 & 정의철, 2012).

## 2. 문제 음주 행태

대학생에서 흔히 사용되는 문제 음주 선별 검사로는 CAGE(cut down, annoyed, guilty feeling, eye opener), MAST(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등이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CAGE는 낮은 민감도와 낮은 양성 예측도를 보여 선별검사로는 효과적이지 않았다(Heck & Lichtenberg, 1990). 또한 MAST는 대학생 대상에서 높은 특이도를 보이나 선별검사로는 민감도가 떨어져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Smith, Collins, Kreisberg, Volpicelli, & Altermanet, 1987).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AUDIT는 미국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음주자 선별 검사로 높은 타당도를 보였다(Fleming, Barry, & Macdonald, 1991).

대학생은 성인과 달리 음주패턴이 지속적인 과음보다는 일시적 폭음을 하는 행태가 많아 성인과 다른 음주습관을 가지는 학생들에게 AUDIT 검사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이정길 외, 2011). 대학생 대상으로 검증한 AUDIT 는 NIAAA(2005)에서 제시한 AUDIT 지침을 따라 표준 1잔을 순수 알코올 14g으로 계산하여 국내에서 시판되는 19.5% 소주 1병(360ml)은 알코올 55.4g으로 표준 4잔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이정길 외 (2011)의 연구결과에서 대학생 문제 음주자에 대한 선별검사 시 적용할 수 있는 AUDIT 기준 점수는 남학생에서 8점 이상, 여학생에서 6점 이상이 적절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김용석(1999)이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한 12점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미국에서도 성인과 대학生の AUDIT 기준 점수 차이 연구에서 대학생을 남녀 관계없이 6점으로 성인의 8점과는 다른 기준 점수를 제시하였다(Kokotailo, Egan, Gangnon, Brown, Mundt, & Fleming, 2004). 이러한 기준 점수의 차이는 지속적인 과음보다는 일시적인 폭음이 많은 대학生の 음주 습관이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AUDIT를 이용한 연구에서 표준 1잔의 기준 변화로 인해 같은 소주 1병을 마실 경우 이전 연구

에서는 AUDIT 2번 문항의 점수가 3점(7잔)이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1점(4잔)으로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소주 1병(소주잔으로 7잔)은 이전의 AUDIT 3번 문항(폭음)에 해당되지만, 수정된 AUDIT 3번 문항에는 해당되지 않아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음주 점수가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표준 1잔의 기준은 19.5% 소주 55ml, 4.5% 병맥주 340ml, 7% 막걸리 230ml로 각각 소주 1/4병, 작은 병맥주 1병, 막걸리 1사발에 해당한다. 알코올 진단기준은 AUDIT점수 5점 이하의 경우 정상 음주군으로 6점 이상은 문제 음주군으로 정의하며, 폭음(binge drinking), 과음, 위험음주(hazardous drinking)등을 문제 음주자로 정의하였다.

### 3. 음주동기

음주동기는 음주와 관련된 문제에서 선행하는 요인이며 인지적 개입에 유용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음주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때 먼저 점검해야 하는 요소이다(김인석, 2001). Cooper(1994)는 음주동기에 따라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가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술을 마시는 음주행동은 기쁨과 같은 긍정적 감정이나 분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전략적이면서 동기가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남녀 대학생의 음주동기에서도 대입되었다. 남녀 대학생 문제 음주자의 경우 긍정적 기분이나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음주하는 경향과 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음주하는 경향, 그리고 사회적 비난이나 타인의 거부를 피하기 위해 음주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서경현 외, 2006). 하지만 젊은 남녀의 음주동기는 서로 차이를 보이는데, 젊은 여성의 경우 정서적 고통을 관리하기 위해 과음 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젊은 남성은 사회적 관계를 촉진시키거나 반항의 수단으로 과음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Wechsler & Kuo, 2000). 이처럼 성별에 따라 음주동기가 다르다면 음주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Cox와 Klinger(1988)는 음주동기를 결과의 방향성과 근원의 소재(locus)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는 고양동기(enhancement motives)로, 음주의 동기가 내부로 부터 나와 긍정적인 기분이나 편안함을 높이기 위해 음주를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고양 동기는 대학생과 일반 남성에서 많이 나타나며 고양동기가 클수록 음주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고양동기가 높은 집단에서는 그 다음으로 대처동기가 높았으며, 이 집단의 경우 친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인석, 현명호, & 유제민, 2001).

두 번째 음주동기는 사교 동기(social motives)로 외부로부터 오는 정적 강화이며 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음주를 하는 것이다. 사교 동기는 주로 여대생 문제 음주자에서 많이 사용되는 동기로 나타났으며, 여대생 문제 음주자의 경우 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김인석 외, 2003; 서경현 외, 2005). 그러나 신행우 외 (1999)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사교 동기와 동조 동기에서 더 높게 나타나 남자가 여자에 비해 술을 사교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사회적 압력에 더 취약하다고 보았다.

대처 동기(coping motives)는 그 세 번째 이유로, 내부에서 온 부적 강화의 동기에 의해 술을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제어하기 위해 음주를 하는 것이다. 여대생 문제 음주자에서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스트레스나 우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음주를 선택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대처동기처럼 부적강화의 동기에 의해 술을 마셨다면 위험음주자일뿐만 아니라 유해음주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음주동기는 여대생들의 문제 음주에 대하여 잘 설명해준다(한금선 외, 2003).

마지막으로 동조 동기(conformity motives)란 외부에서 온 부적 강화의 동기로, 사회적 비난이나 타인의 거부를 피하기 위해 음주하는 것을 뜻한다. 여대생이 사교 동기, 고양동기 및 대처동기에 의해 술을 마신다면 위험음주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동조동기에 의해 술을 마셨다면 위험음주자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

그 외에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성격특성이 있으며, 음주동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음주 가족력과 흡연으로 밝혀졌다(탁진국, 2000).

#### 4. 절주 행위에 미치는 변수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이러한 행동적 의도는 행동의 결과와 주변인이 그에 대해 어떻게 느낄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였다(Taylor, Peplau, & Sears, 2000). 이렇듯 어떤 행위에 대한 계획은 그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동을 수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이다(Azen & Fishbein, 1975).

절주행위는 개인의 자발적 행동의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절주라는 행동의지는 환경적 조건에 의해 자신이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행위이므로 그 환경에서 개인의 신념이나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행동이행은 개인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Azjen, 1991; Azjen & Driver, 1991).

음주와 관련된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절주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부정적 태도로 나누어 보았으며, 문제 음주자에서 음주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개인의 문제 음주를 예측하는 변수이고, 음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차동필, 2005; 정슬기, 2006; Hagger, Lonsdale, Hein, Koka A, Lintunen, Pasi, et al., 2012). 그러므로 절주에 따른 결과기대가 긍정적일 경우에 절주 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혜라, 2000; 박현정 & 박종민, 2011).

두 번째 개념인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특정 행위의 수행 여부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적 관계에 의한 영향력 (Azen & Driver, 1991)으

로 음주 대학생이 절주하거나 금주를 실천하는 데 방해하는 특정인의 영향력을 대상자가 인지한 정도를 말한다(Norman, Bennett, & Lewis, 1998). 대학생은 동료의 음주횟수와 양을 과대평가하고 음주행동을 더 규범적이라고 인식하여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문제성 음주에 대한 규범을 더 인식할수록 문제성 음주를 할 의도가 커질 것으로 예측한다(이선영 외, 2012). 주관적 규범에서 친구의 음주빈도가 음주의도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주었고(Cooke & French, 2011), 부모님의 규제는 절주의도에 가장 높은 예측을 보였다(신행우, 2009). 더불어 여대생 대상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심성욱 외, 2009), 기존 연구결과에서 주관적 규범이 다른 개념보다 약한 예측력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 이는 음주나 흡연이 이미 습관이자 생활의 일부가 된 상황에서 절주나 금연을 규범으로 인식하여 행동의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에 기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한덕웅 & 이민규, 2001; 차동필, 2005).

세 번째로, 지각된 행위통제는 개인이 특정 행위에 대해 지각하는 수행가능성 또는 불가능성의 정도를 뜻한다. 이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내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정도로 반듀라의 자기효능감을 발전시킨 개념으로(Ajzen & Driver, 1991), 또한 자신이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가 높을수록 행동 의도는 높아진다(한덕웅 외, 2001; Norman, et al., 1998; Norman, 2011). 음주학생이 절주하거나 금주 하는 것이 스스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문제성 음주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높으면 절주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이선영 외, 2012).

대학생의 문제성 음주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차동필(2005)은 대학생의 폭음의도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행동에 대한 태도뿐이라고 하였으며,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음주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절주의도에 모두 비슷한 크기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다(유혜라, 2000; Johnston

et al., 2003; 이선영 외, 2012).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한 심성옥 외 (2009)의 연구가 그것으로, 이 연구는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주로 작용하고 있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드러낸다. 직장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윤경(2008)은 지각된 행위통제만이 절주의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나이와 성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른 것은 선행연구의 표본이 일 지역이나 좁은 범위에 치우쳐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문제 음주자의 절주 의도가 절주 행동을 예측한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Gardner, Bruijn, & Lally, 2011; Elliott & Ainsworth,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도를 태도 신념으로 측정하고, 주관적 규범은 사회 규범적 인식으로 지각된 통제능력은 조정능력 인식으로 바꾸어 측정하여 문제 음주 여대생의 절주 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고, 음주동기와 개인적 특성들이 절주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여대생의 문제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적 요인 중에서 음주동기와 개인의 복잡한 행위인 절주의도를 예측하고자 한다. 이에 개인적 특성을 추가하여 문제 음주 여대생의 절주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을 실시하고자한다.



### III. 개념적 기틀

####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절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의도는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행위이론을 바탕으로 종속변수로 절주의도를 보았으며, 또한 이론의 확장을 위해 음주동기와 음주행태(AUDIT), 그리고 개인별 특성과의 관계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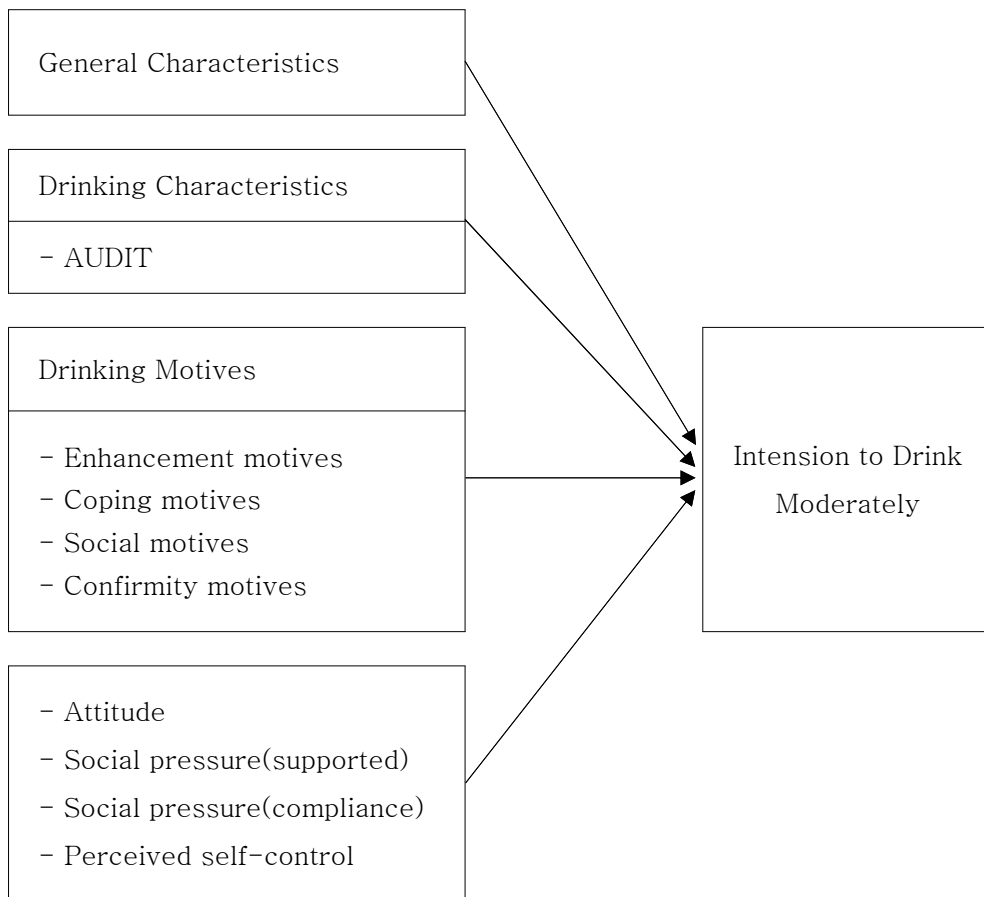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 IV.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절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여대생의 문제 음주율은 한국음주문화센터(2011)에서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 한 달 간 소주 5잔(알코올 40g)이상의 음주율인 59.3%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표본 수는 Cohen의 공식을 사용하여 표본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신뢰수준 95%(Z=1.962)와 양측검정으로 대상표본 수는 389.5명이고 문제 음주군은 231명으로 산출되었다.

$$\begin{aligned} \text{sample size} &= \frac{Z^2 \times p \times (1-p)}{C^2} \\ &= \frac{3.841 \times 0.593 \times 0.407}{0.02^2} = 231 \text{명(문제 음주군)} \\ &= \frac{231}{59.3} \times 100 = 389.5 \text{명(대상 표본 수)} \end{aligned}$$

### 3. 연구 도구

#### 1) 절주 의도 측정 도구

Ajzen과 Fishbein(1980)이 제시한 계획된 행동이론의 개념을 유혜라(2000)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절주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원 도구 개발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 도구이다. 절주의 정의는 과음과 폭음의 반대의 의미로 ‘건강에 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량’이며, 여자는 하루 알코올 20g(소주 78ml, 맥주 500ml) 이하, 주 2회 이내를 의미한다(NIAAA, 2005). 절주 문항은 “나는 한 달 안에 절주할 의도가 있다”로 응답은 ‘매우 그렇지 않다(-3)’, ‘대체로 그렇지 않다(-2)’, ‘약간 그렇지 않다(-1)’, ‘모르겠다(0)’, ‘약간 그렇다(1)’, ‘대체로 그렇다(2)’, ‘매우 그렇다(3)’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절주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 2) 영향변수의 측정 도구

##### (1) 개인별 사회 환경적 요소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별 관련 요소는 연령, 학년, 전공, 흡연 여부, 거주 형태, 종교, 용돈 수준, 부모님 음주력, 동아리 활동 여부, 친구의 음주 횟수,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 스트레스 수준 등을 포함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음주동기

음주동기는 신행우 외(1999)가 Cox와 Klinger(1988)의 음주동기 분류에 따라 구성한 척도를 원 도구 개발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 측정하였다. 하위척도는 고양 동기 4문항, 대처동기 4문항, 사교동기 4문항, 동조동기 4문항으로 5점 Rikert 척도이고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처음 Cooper가 측정한 음주동기 Cronbach's  $\alpha$  값은 고양동기 .90, 대처동기 .88, 사교동기

.93, 동조동기 .79이었으며, 신행우 외 (1999)의 도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고양동기 .76, 대처동기 .91, 사교동기 .81, 동조동기 .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고양 동기 .782, 대처 동기 .783, 사교 동기 .864, 동조 동기 .869였다.

### (3) 음주 행태(AUDIT)

WHO에서 개발한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는 초기 위험성 있는 음주를 선별하기 위해 만든 측정도구이다. 문항은 음주의 양에 관한 3문항, 음주 행태 3문항, 그리고 정신 사회학적 문제의 유무에 관한 4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4점 만점으로 총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알코올 사용 장애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AUDIT 도구는 NIAAA(2005) 지침에 따라 표준 1잔을 순수 알코올 14g을 기준으로 하였다. 국내시판 소주의 알코올 함량은 19.5%이므로 1병에 함유된 알코올은 55.4g이다. 이를 근거로 소주 한 병을 표준 4잔으로 계산하여, 이정길 외 (2011)이 AUDIT의 2번 문항을 1) 1~2잔을 “소주 반 병 이하”, 2) 3~4잔을 “소주 한 병 이하”, 3) 5~6잔을 “소주 1.5병 이하”, 4) 7~9잔을 “소주 2.5병 미만”, 5) 10잔 이상을 “소주 2.5병 이상”으로 수정하였고, 3번 문항 또한 소주 5잔 이상을 “한 병 초과”로 수정한 도구를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수정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값 .832로 나왔고, 여자 대학생들의 문제 음주 선별 점수는 6점으로 이에 대해 AUDIT의 AUROC 값은 0.989였으며, 민감도는 100%이고, 특이도는 89.4%로 나왔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743이었다.

### (4) 태도 신념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한 태도는 의미 분별 적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맥락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일반적인

가치로 질문하였다(유혜라, 2,000). 문항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학교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생활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다’, ‘이미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인간관계가 나빠진다’, ‘분위기를 망친다’로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중 마지막 두 문항은 도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긍정 쪽의 매우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다 (2점), 약간 그렇다(1점), 보통이다(0점), 약간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매우 그렇지 않다(-3)로 7점 리커트 척도이며, 최고 24점과 최저 -2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절주태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유혜라(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4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703이었다.

#### (5) 사회 규범적 인식

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부과되는 사회적 압력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으로 부모님, 형제, 남자친구, 동성친구, 선배, 후배, 동기(과 친구)로 본인의 절주 행위에 대해 찬성하는 지와 그 의견에 순응하는 지를 묻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긍정 쪽의 매우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다 (2점), 약간 그렇다(1점), 보통이다(0점), 약간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매우 그렇지 않다(-3)로 7점 리커트 척도이며 최고 21점에서 최저 -21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규범적 인식이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유혜라(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68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사회 규범적 인식의 절주 찬성은 .846, 사회 규범적 인식의 순응 동기는 .880이었다.

#### (6) 조정능력 인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조정능력 인식으로 변경하여 절주행위가 수행하기 쉬운 과제라고 생각하는 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하였

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절주를 방해하는 술자리가 많다’,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많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절주를 할 수 있다’, ‘절주는 수행하기 쉬운 행위이다’ 등으로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앞 두 문항은 도치 문항이다.

긍정 쪽의 매우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다 (2점), 약간 그렇다(1점), 보통이다(0점), 약간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매우 그렇지 않다(-3)로 7점 리커트 척도이며, 최고 28점에서 최저 -2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절주에 대한 주관적 통제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유혜라(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76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560 이었다.

#### 4. 자료수집 및 절차

서울 소재 42개 대학 가운데 4개 대학을 임의 표본 추출하였으며, 간호대학의 윤리심의 위원회(IRB)승인을 받은 후 2013년 1월 중순 부터 4월 초 까지 3개월 동안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의 일부는 수업시간에 해당 교수님께 협조를 받아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자료를 수집하였고, 일부는 선정된 대학교에 훈련된 조사원을 파견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각 대학 학생휴게실, 도서관, 학생회관 등에서 연구 취지를 설명한 다음 서면 동의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응답에 필요한 소요 시간은 10~15분이었다.

자료조사에서 총 444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부적절한 응답지 8개를 제외한 436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AUDIT 점수 6점 미만인 정상 음주자 203명(46.6%)과 AUDIT 점수 6점 이상인 문제 음주자 233명(53.4%)으로 구분하여 문제 음주자 233명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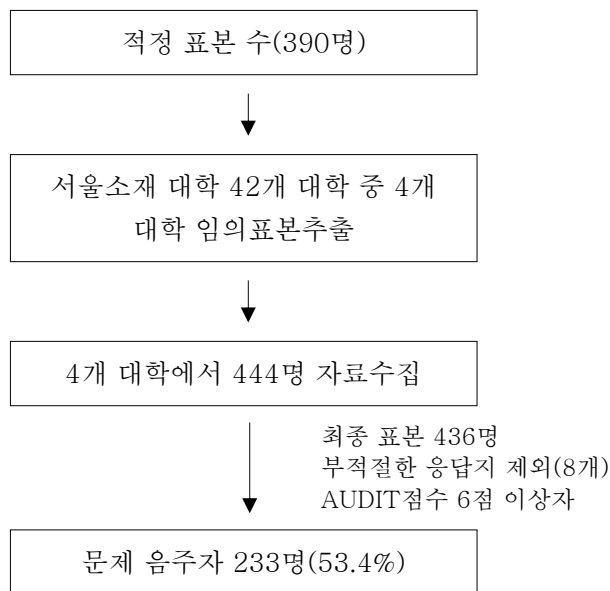


Figure 2. Sampling procedure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변수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포함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수간의 관계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변수에 대한 영향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V.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만 연령은 17~19세가 66명(28.3%)이었고, 20~21세가 88명(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22~24세는 59명(25.3%)이었고, 25세 이상은 10명(4.3%)을 차지했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69명(29.6%)으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 60명(25.8%), 3학년은 56명(24.0%), 4학년 38명(16.3%)의 순이었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이 100명(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공계열 71명(30.5%)과 예체능계열 62명(26.6%)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학생들의 흡연 습관으로는 비흡연자가 196명(84.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흡연자는 37명(15.9%)이었다.

가족과 동거 여부에서 동거자는 101명(43.3%)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가 132명(56.7%)으로 13% 정도 많았다. 종교 유무에서도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84명(36.2%)이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49명(63.8%)으로 비종교자가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한 달 용돈수준에서는 ‘보통이다’가 137명(59.0%)으로 가장 많았으며, ‘많은 편이다’가 58명(24.8%)으로 두 번째 많았고, ‘매우 많은 편이다’와 ‘매우 적은 편이다’가 각각 8명(3.4%)을 차지했다. 부모님의 음주 행태에 대한 응답은 ‘두 분 다 하신다’가 100명(42.7%)으로 가장 많았고, ‘한 분만 하신다’가 96명(41.5%)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전혀 안 하신다’는 37명(15.8%)을 차지해 문제 음주 여대생의 부모님 중 84.2%가 음주를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친구의 음주 횟수로는 ‘1주에 한번’이 63명(27%)으로 가장 많았고, ‘한 달에 두 번’이 58명(24.9%)으로 그 다음 순이었으며, 세 번째로는 ‘한 달에 한번’이 55명(23.6%)을 차지했고, ‘주 2회 이상’은 49명(21.0%)이 차지했다. ‘주 1회 이상’이 48%를 차지하여 친구의 음주횟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 동아리활동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혀 안 한다’가 110명(47.2%)으로 가장 많았고, ‘조금 한다’가 51명(21.9%)으로 두 번째였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한다’가 42명(18.0%)이었으며, ‘보통이다’가 30명(12.9%)순이었다.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한다’가 102명(44%)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가 84명(35.9%)으로 두 번째 많았으며, ‘매우 만족한다’가 23명(9.8%)이었으며, ‘불만족 한다’가 17명(7.3%)이었고, ‘매우 불만족 한다’가 7명(3.0%) 순으로 많았다. 만족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약 54%를 차지해 반 수 이상의 학생들이 만족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다. 학업스트레스 정도에서는 ‘보통이다’가 91명(39.3%)으로 가장 많았고, ‘높다’고 응답한 수가 78명(33.3%)으로 두 번째였으며, ‘낮다’고 응답한 사람이 28명(12.0%)이었고, ‘매우 높다’가 26명(11.1%)으로 비슷했으며, ‘매우 낮다’가 10명(4.3%) 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17~19	66	28.3
	20~21	88	37.8
	22~24	59	25.3
	≥25	10	4.3
Grade	1st	69	29.6
	2nd	60	25.8
	3rd	56	24.0
	4th	38	16.3
Major	Humanity & Social study	100	42.9
	Science & Engineering	71	30.5
	Art & Physical education	62	26.6
Smoking status	Non smoker	196	84.1
	smoker	37	15.9
Living with family	Yes	101	43.3
	No	132	56.7
Religion	Yes	84	36.2
	No	149	63.8
Monthly pocket money	Very high	8	3.4
	High	58	24.8
	Middle	137	59.0
	Low	22	9.4
Status of parents drinking	Very low	8	3.4
	No	37	15.8
	Only one parent	96	41.5
	Both parents	100	42.7
Status of peers drinking	Over 2 times/week	49	21.0
	One time/week	63	27.0
	One time/month	55	23.6
	Two times/month	58	24.9
Participation of club activity	Not at all	8	3.4
	None	110	47.2
	A little	51	21.9
	Moderate	30	12.9
Level of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High	42	18.0
	Very unsatisfied	7	3.0
	Unsatisfied	17	7.3
	Moderate	84	35.9
Level of stress with academic achievement	Satisfied	102	44.0
	Very satisfied	23	9.8
	Very high	26	11.1
	High	78	33.3
Level of stress with academic achievement	Moderate	91	39.3
	Low	28	12.0
	Very low	10	4.3

## 2. 대상자의 음주관련 특성

### 1) 음주 행태(AUDIT)

조사 대상자의 AUDIT 점수는 최저 6점에서 최고 34점까지 분포를 보였다. 이들을 WHO의 AUDIT guidelines에 따라 점수별 위험도를 구분하였다. 6점~15점은 위험 음주(hazardous drinking) 수준으로 가장 많은 175명(75.1%)이었으며, 16점~19점은 위해 음주(harmful drinking) 수준으로 정신적 신체적 알코올 의존 수준으로 26명(11.2%)이었고, 20점 이상자는 알코올 의존(alcohol dependence)으로 행동과 의식, 그리고 정신사회적문제를 갖고 있는 수준으로 32명(13.7%)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AUDIT Cut-off Score N=233

Characteristics	Scores	n	%
Hazardous drinking	6-15	175	75.1
Harmful drinking	16-19	26	11.2
Alcohol dependence	≥ 20	32	13.7

음주행태를 나타내는 AUDIT 전체 문항의 평균은 12.12(SD=5.912)로 확인되었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AUDIT N=233

Characteristic	Number of items	Range	M	SD	MIN	MAX
AUDIT	10	0~40	12.12	5.912	6	34

## 2) 음주동기

대상자의 음주동기를 네 가지 동기별로 살펴보면, 고양 동기의 평균(M=2.34, SD=.731)과 대처 동기(M=2.75, SD=.986), 사고 동기(M=3.55, SD=.816), 그리고 동조 동기(M=1.99, SD=.879)로 확인되었으며, 문제 음주 여대생의 음주동기 중에서 사고 동기가 가장 높았고, 대처 동기와 고양 동기가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동조 동기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Drinking Motives N= 233

Characteristics	Number of items	Range	M	SD	MIN	MAX
Enhancement motives	4	1-5	2.34	.731	1.00	4.25
Coping motives	4	1-5	2.75	.986	1.00	5.00
Social motives	4	1-5	3.55	.816	1.00	5.00
Confirmity motives	4	1-5	1.99	.879	1.00	4.75

## 3) 태도 신념, 사회 규범적 인식, 조정능력 인식

조사자의 태도 신념의 평균(M=.75, SD=.949)은 ‘약간 그렇다’에 근접한 결과를 보였으며, 사회 규범적 인식의 절주 찬성의 경우 평균(M=-.07, SD=1.114)이 부적적으로 나타나 주변 사람들이 절주 하는 것에 대해 ‘약간 그렇지 않다’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규범적 인식의 순응 동기의 경우는(M=0.29, SD=0.954) 사회 규범적 인식의 절주 찬성과는 달리 ‘보통이다’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조정능력 인식의 경우 평균(M=.72, SD=1.042)이 태도 신념과 비슷한 수준으로 ‘약간 그렇다’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

각 변수별 항목을 살펴보면 태도 신념에서는 ‘건강을 지킬 수 있다’의 평균(M=1.46, SD=1.58)이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돈을 절약할 수 있다’(M=1.07, SD=1.80)이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M=1.05, SD=1.69)가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이미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다’(M=-.30, SD=1.628)는 부적으로 나타나 절주를 하면 이미지 관리에 나쁘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규범적 인식에서 주위사람의 절주 찬성에서는 부모님이 가장 높은 평균(M=1.10, SD=1.760)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남자 친구(M=.63, SD=1.878)로 형제(M=.59, SD =1.821)보다 높았다. 하지만 친구(M=-.30, SD=1.710)와 선배(M=-.70, SD=1.562), 후배(M=-.53, SD=1.552), 그리고 동기(M=-.59, SD=1.635)의 경우 부적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사회 규범적 인식의 순응 동기에서는 부모님이 가장 높은 평균(M=1.06, SD=1.312)을 보였고, 형제(M=.53, SD=1.459), 남자친구(M=.37, SD=1.400)순으로 절주 찬성 인식에서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친구(M=.49, SD=1.218), 선배(M=.22, SD=1.285), 동기(M=.16, SD=1.265)의 순으로 긍정적 영향을 나타낸 반면, 후배(M=-.19, SD=1.329)의 경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조정능력 인식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절주를 할 수 있다’의 평균(M=1.89, SD=1.360)이 가장 높았으며, ‘절주는 수행하기 쉬운 일이다’(M=1.61, SD=1.504),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많다’(M=.50, SD=1.795), 그리고 ‘절주를 방해하는 술자리가 많다’(M=.25, SD=1.865)로 나타났다.

Table 5. Characteristics of Attitude, Social pressure, Perceived self-control

N=2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	SD	MIN	MAX
Attitude	You can save money	1.12	1.668	-3	3
	You can keep the health	1.44	1.423	-3	3
	You can save time	1.00	1.560	-3	3
	Can faithfully school	.43	1.784	-3	3
	Life on a regular basis can be	.63	1.768	-3	3
	Image management can	-.30	1.628	-3	3
	Human relationship falls	.94	1.704	-3	3
	Spoil the atmosphere	.74	1.749	-3	3
	M±SD	0.75	0.949	-2.63	2.75
Social pressure (supported)	Parents	1.17	1.671	-3	3
	brother/sister	.50	1.731	-3	3
	Boy friend	.69	1.777	-3	3
	Friends	-.44	1.542	-3	3
	Seniors	-.90	1.309	-3	3
	Juniors	-.76	1.273	-3	3
	Peer	-.72	1.479	-3	3
	M±SD	-0.07	1.114	-3.00	2.57
Subjective norm (compliance)	Parents	.86	1.246	-3	3
	Brothers& sisters	.41	1.353	-3	3
	Boyfriend	.30	1.301	-3	3
	Friends	.45	1.138	-3	3
	Seniors	.16	1.252	-3	3
	Juniors	-.28	1.232	-3	3
	Peer	.09	1.188	-3	3
	M±SD	0.29	0.954	-2.14	3.00
Perceived self-control	There are many drinking interfere with moderate drinking	-.14	1.780	-3	3
	Want to drink a lot of alcohol	-.02	1.591	-3	3
	Important thing when moderate drinking can be	1.74	1.397	-3	3
	Moderate drinking is easy to carry	1.28	1.557	-3	3
	M±SD	0.72	1.042	-2.00	3.00

#### 4) 절주 의도

문제 음주 대상자의 절주 의도는 평균(M=.05, SD=1.90)이 ‘모른다’로 나타나 절주할 의도가 분명치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 Intension to Drink Moderately

N= 233

Characteristic	Category	M	SD	MIN	MAX
Intension to Drink Moderately	I intend to moderate drinking in a month	.05	1.90	-3	3



### 3. 절주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 1) 절주 의도와 일반적 특성과의 상관관계

조사 대상자의 절주의도와 일반적 특성과의 상관성을 확인하였는데 학년 ( $r=.130, p <.05$ )과 친구의 음주횟수( $r=-.208, p <.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상관관계는 낮은 편이었다.

Table 7. Correlations Intension to Drink Moderately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y11	y12
y1	1											
y2	-.126	1										
y3	-.008	.113	1									
y4	.001	.032	-.045	1								
y5	.043	-.151*	.002	.031	1							
y6	.021	-.014	-.037	-.074	-.024	1						
y7	-.170*	-.073	-.097	.161*	-.018	-.090	1					
y8	.010	-.029	-.115	.028	.143*	.098	-.068	1				
y9	.057	.010	-.035	.113	.000	.017	-.164*	.208**	1			
y10	-.049	.027	-.181**	.023	.014	-.088	.187**	.076	.017	1		
y11	-.108	-.092	-.083	.032	.129	-.044	.017	.000	-.031	.337**	1	
y12	.131*	-.070	.033	.105	-.008	.061	-.069	-.026	-.218**	-.052	.003	1

\* $p <.05$  \*\* $p <.01$

y1:Grade, y2:Major, y3:Smoking status, y4:Living with family, y5:Religion, y6:Monthly pocket money, y7:Participation of club activity, y8:Status of parents drinking, y9:Status of peers drinking, y10:Level of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y11:Level of stress with academic achievement, y12:Intension to drink moderately

## 2) 절주 의도와 음주 특성과의 상관관계

조사 대상자의 절주의도와 음주 특성과의 상관성을 확인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AUDIT( $r=-.253, p <.01$ )와 고양 동기( $r=-.287, p <.01$ ), 대처 동기 ( $r=-.259, p <.01$ ), 사고 동기( $r=-.156, p <.05$ )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절주 찬성에 대한 사회 규범적 인식 ( $r=.223, p <.01$ )과 사회 규범적 인식의 순응 동기( $r=.131, p <.05$ ), 절주 찬성과 순응 동기의 곱( $r=.132, p <.05$ ), 그리고 조정능력 인식( $r=.380, p <.01$ )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8. Correlations Intension to Drink Moderately with Drinking Characteristics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y11
y1	1										
y2	.411**	1									
y3	.377**	.428**	1								
y4	.281**	.426**	.300**	1							
y5	.248**	.223**	.243**	.348**	1						
y6	.111	.011	.077	.019	.038	1					
y7	.116	-.092	-.074	-.084	.084	.258**	1				
y8	.056	-.033	.039	-.106	.147*	.184**	.293**	1			
y9	.001	-.128	.007	-.132*	-.126	.074	.140*	.017	1		
y10	-.450**	-.384**	-.299**	-.207**	-.322**	-.089	-.035	-.071	.051	1	
y11	-.253**	-.287**	-.259**	-.156*	-.086	.028	.223**	.131*	.132*	.380**	1

\* $p <.05$  \*\* $p <.01$  \*\*\* $p <.001$

y1:AUDIT, y2:Enhancement motives, y3:Coping motives, y4:Social motives, y5:Conformity motives, y6:Attitude, y7:Social pressure(supported), y8:Social pressure(compliance), y9:Social pressure(supported) \* Social pressure(compliance), y10:Perceived self-control, y11:Intension to drink moderately

### 3) 절주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다중회귀 분석에 앞서 두 가지 검증 방법으로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표준화 잔차의 정규성 검증으로 Kolmogorov-Smirnov와 Shapiro-Wilk 검정을 실시한 결과 Kolmogorov-Smirnov( $p > .05$ )와 Shapiro-Wilk( $p > .05$ )의  $p$ 값이 .05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Q - Q plot의 도표에서 관측값과 기대값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이 검증되었다.

Table 9. Test of Normality

	Kolmogorov-Smirnov <sup>a</sup>			Shapiro-Wilk		
	통계량	df	p	통계량	df	p
Standardized Residual	.054	233	.099	.988	233	.050

a. Lilliefors 유의확률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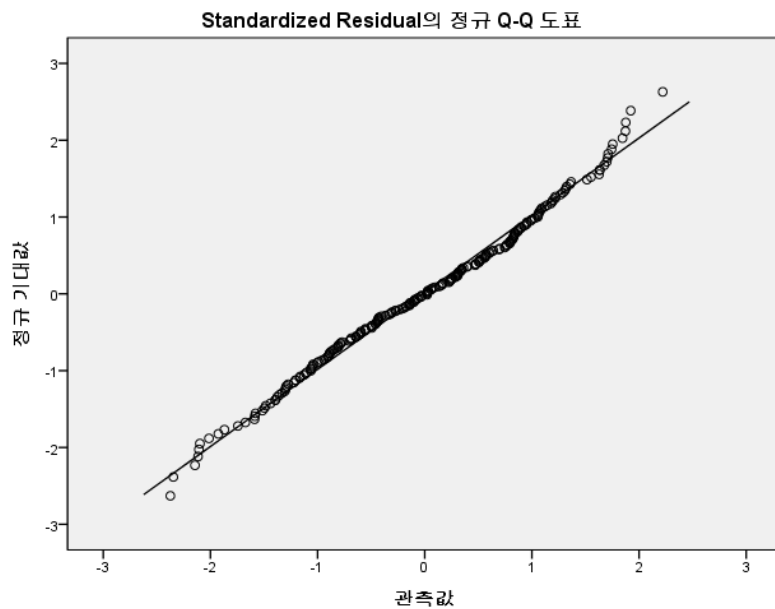


Figure 3. Standardized Residual Q - Q plot

문제 음주 여대생의 절주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절주 의도와 의 상관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만을 도출하여 회귀식에 적용하였다. 또한 회귀식 결과 분석에 앞서 공선성을 검증하였는데, 공차 한계값은 .10보다 크고 VIF는 10보다 작아 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회귀분석의 자료입력은 전진(stepforward)방식으로 분석하였으며 설명력은 21.5%로 확인되었다( $R^2=.215$ ). 해당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는 지각된 조절 능력 인식의 회귀계수( $\beta=.363$ ,  $t=5.940$ ,  $P <.001$ )가 가장 컸으며, 사회 규범적 인식의 절주 찬성( $\beta=.221$ ,  $t=3.712$ ,  $P <.001$ )과, 친구의 음주횟수( $\beta=-.132$ ,  $t=-2.163$ ,  $P <.05$ )순으로 영향력을 미쳤다. 제외된 변수로는 AUDIT와 음주동기의 고양동기, 대처동기, 사교동기, 절주 찬성과 순응 동기의 곱, 그리고 학년이였다.

Table 10. Multiple Regression of Intension to Drink Moderately

Characteristics	B	SE	( $\beta$ )	t	P	tolerance	VIF	$R^2$ 변화량
(상수)	-402	.140		-2.861	.005			
Perceived self-control	.658	.111	.363	5.940	.000***	.946	1.057	.149
Social pressure (Supported)	.377	.102	.221	3.712	.000***	.998	1.002	.050
Status of peers drinking	-.214	.099	-.132	-2.163	.032*	.947	1.056	.017

$R^2=.215$ ,  $F=20.282$  ( $P<.001$ ), Durbin-Watson=2.126

## VI. 논의

### 1. 문제 음주 여대생의 음주 특성

본 연구 조사 대상자의 AUDIT점수를 WHO의 가이드라인 2<sup>nd</sup> ed.(2001)에 따라 점수별 위험 수준으로 분류한 결과 위험음주(hazardous drinking)수준이 가장 많은 75.1%를 차지하였고, 위해음주(harmful drinking)수준은 11.2%였으며, 알코올 의존(alcohol dependence) 수준은 13.7%로 확인되었다. 알코올 의존의 경우는 의학적 검사와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여대생의 심각한 음주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황은 아니다.

여성의 경우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보다 매우 크므로 많은 알코올 섭취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WHO에서 음주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는데 문제 음주를 하는 여성의 경우 특히 유방암 발병률과 기형아와 저체중아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문제성 음주는 여성의 건강에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친다. 여대생 음주의 경우 대학에 들어와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사교의 일종으로 음주가 시작되고 음주에 관한 지식이 없이 분위기와 주변 사람의 영향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된다. 이때에 절제와 통제를 통하여 건강한 음주를 할 수 있으려면 그 이전에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한다. 적절한 음주에 대한 교육을 조기부터 실시하여 올바른 음주 방법을 익히고, 위험성에 대처하게 하는 것이 현재의 높은 문제성 음주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문제 음주 여대생의 음주동기에서는 사교 동기가 가장 높은 평균(M=3.55, SD=.816)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대처 동기가 높았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했다(신행우, 1999; 서경현 외, 2005). 여대생의 음주동기는 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향이 강한 사교동기와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거나 제어하기 위해 술을 마시

는 경향이 강한 대처동기로 마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난미(2010)의 연구 결과에서는 대처동기가 사고동기보다 더 높았지만 여대생의 음주동기와 문제 음주 여대생의 음주동기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0대 초반 시기의 여대생의 심리사회적 모습은 감정 변화의 폭이 크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면서 활발한 모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혼자서 마시는 것 보다는 여럿이 모여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떤 성격의 모임이든 술을 권하는 문화 풍조로 모임이 잦을 경우 음주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도 음주동기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음주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문제 음주율은 53.5%로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문제성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음주문화센터(2011)의 59.3%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문제 음주 여대생의 절주 의도는 평균( $M=0.05$ ,  $SD=1.90$ )이 '모르겠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가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이선영 외, 2012). 남녀대학생의 절주 의도를 연구한 유혜라(2000)의 결과에서도 절주 의도는 44%로 낮게 나타났으며, 서경현 외 (2005)의 연구결과에서도 문제 음주 남녀대학생에서 모두 낮은 절주 의도를 보여 문제 음주자의 절주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문제 음주자의 절주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에 들어와서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초중등 교육과정 속에서 음주교육이 시작되어야 더욱 효과적이다. 음주는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라 사회 활동과 특유의 문화가 합쳐져 이루어지는 행동의 일환이므로 사회 문화 전체의 인식이 바뀌어야만 변화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음주가 미치는 위해에 대하여 더 많은 교육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여성의 신체적 약점으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사고를 갖지 않도록 교육 현장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2. 절주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본 연구결과에서 문제 음주 여대생의 절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정능력 인식( $\beta=.293, p <.001$ )과 사회 규범적 신념의 절주 찬성( $\beta=.182, p <.05$ ), 그리고 친구의 음주 횟수( $\beta=-.132, t=-2.163, P <.05$ )로 밝혀졌다. 전체 설명력은 21.5%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조정능력 인식은 절주 의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각된 행동통제가 문제성 음주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선영 외 (2012)의 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조정능력이 음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성 음주자의 절주 의도를 살펴본 유혜라(2000)의 연구에서도 조정능력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절주 의도를 연구한 김윤경(2008)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행동 통제가 절주 의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조정능력 인식이 절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 규범적 신념의 절주 찬성의 경우 주변 사람에서는 부모님 ( $M=1.17, SD=1.671$ )과 남자 친구( $M=.69, SD=1.777$ )를 높게 인식한 유혜미(2000)의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여대생의 경우 부모님과 남자친구가 절주를 원한다고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규범적 인식의 순응 동기에서는 선배의 영향력이 부모님 다음으로 높아 절주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선배의 의견에는 따르겠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절주 찬성에서 부적( $M=-.90, SD=1.309$ )으로 나타나 선배는 문제 음주 여대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여대생의 경우도 남학생과 같이 선후배 사이가 위계적이라는 한국 여대생의 선후배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나윤경 & 권인숙, 2010). 뿐만 아니라 친구, 후배, 동기의 경우도 절주 찬성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순응 동기에서는 의견을 따르겠다는 인식을 나타내어 음주 행동

이 대학생 역시 또래 집단이 유용한 예측 변수가 된다는 연구 결과(심성욱 외, 2009, 재인용)를 지지하였다.

친구의 음주 횟수( $\beta = -.132$ ,  $t = -2.163$ ,  $P < .05$ )는 절주 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주 행위를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 피드백을 원하는 결과로 볼 때 문제 음주 여대생의 절주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관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신행우(2009)의 연구에서도 친한 친구들의 평균주량이 음주 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과음하는 대학생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심각한 음주를 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음주 여대생의 경우도 남학생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어 음주가 사회적 행동이므로 주변 동료의 음주가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입증하였다(심성욱 외, 2000). 우리나라 음주 문화의 경우 술을 혼자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음주 행위를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절주 행동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태도 신념과 절주 의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 신념의 평균( $M = 0.75$ ,  $SD = 0.949$ )이 '보통이다'로 나왔고, 절주 의도는 '모르겠다'로 확인되어 절주 의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태도 신념이 높고, 절주에 따른 결과 기대가 긍정적일 경우에 절주 의도도 높아진다는 결과와 같았다(유혜라, 2000; 박현정 & 박종민, 2011). 하지만 태도 신념과 절주 의도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진 않았다. 문제성 음주 태도와 문제성 음주 의도 연구 결과에서도 문제성 음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자신이 문제성 음주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문제성 음주 의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이선영 외, 2012). 연구 결과 문제 음주자의 음주동기가 사회적 지지나 긍정적 피드백을 원하는 사교 동기가 가장 높았고, 사회활동에 음주가 필요한 우리 문화에서 음주를 안 할 경우 사교의 장에서 밀리거나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뒷



받침하는 것으로 태도 신념의 항목에서 절주로 인해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 ‘이미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다’의 평균( $M=-.30$ ,  $SD=1.628$ )이 부적으로 ‘약간 그렇지 않다’로 나타나 절주를 하면 이미지 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태도 신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의 항목에서 ‘약간 그렇다’( $M=1.46$ ,  $SD=1.58$ )로 나타나 음주가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절주를 해서 얻는 장점에 대해 크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태도 신념의 결과는 음주동기에서 확인된 높은 사고 동기와 서로 맞닿아 있어 연구결과의 맥락이 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절주 의도를 설명하는 변수들의 영향력이 전체적으로 낮았는데( $R^2=.215$ ) 그 원인으로는 문제 음주자의 절주에 대한 태도 신념이나 사회 규범적 인식, 그리고 조정능력 인식의 정도가 모두 낮은 평균을 보였기 때문이다. 문제 음주 여대생은 음주가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알지만 사회생활의 도구로 여기며, 주변의 선후배나 친구들 역시 절주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그들의 의견에 따를 동기가 있는 것을 볼 때 절주에 대한 의지는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조정능력 인식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이 .560으로 원 도구(Cronbach's  $\alpha$  .763)와 다르게 매우 낮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조심스럽다. 조정능력 인식은 모두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 두 문항이 도치된 질문으로 다른 문항과 다르게 반대되는 상황의 응답이었다. 게다가 문항이 7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어 응답자에게 혼동을 주어 응답이 일관성 없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도구에서 도치 문항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보다 명확하게 해당 문항을 명시하였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도구를 사용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음주 여대생의 음주 특성을 살펴보면 위험 음주자(hazardous drinking)가 가장 많았지만 알코올 의존수준(alcohol dependance)의 여대생도 13.7%로 나타나 음주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제 음주 여대생의 주변에는 음주하는 사람이 많고, 사교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들의 절주 의도는 ‘모른다’로 확실한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절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 규범적 인식의 절주 찬성과 조절 능력 인식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친구의 음주 횟수가 많을수록 절주 의도에 반대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올바른 음주 교육은 또래와 대학 문화 전체를 포함하는 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문제 음주 여대생의 경우 주변의 가족이나 남자 친구의 절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여 중재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절주 행동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이며, 문제 음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도구 개발 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3.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 1)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수행 및 결과에 있어서 다음의 제한점이 있다.

- (1)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개 대학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여대생에게 확대 적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 하지만 조사된 문제 음주율의 경우 한국음주문화센터의 자료와 거의 일치하여 문제 음주 여대생의 음주 특성은 일반화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
-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절주 의도 측정 항목은 구체적으로 음주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사전 제시 없이 대상자의 절주 의도만을 측정함으로써 응답자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음주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문제 음주 여대생을 측정하는 것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기존 음주 논문에서 일반 음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 행태나 음주 의도를 측정한 것과 달리 문제 음주 여대생을 대상으로 절주 의도를 보았으며, 복잡한 음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적 요인인 음주동기를 포함하여 문제 음주자의 행동을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관련요인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학생 음주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를 또래 집단으로 한정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 형제, 남자친구까지 확대하여 넓게 역학관계를 살펴보고 설명하여 이들의 사회적 규범이 절주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은 문제 음주 여대생의 절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 VII.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문제 음주 여대생의 음주 특성과 절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013년 1월부터 4월 초까지 서울에 소재한 4개 대학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1) 문제 음주 여대생의 음주 횟수는 ‘월 2~4회’ 이상이 87.6%로 매우 높았으며, 일회 음주량에서는 소주 1병 이상이 91.9%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음주 시작 후 자제가 안 된 적이 월 1회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도 20.1%로 나타나 정신사회적 문제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WHO(2001)의 AUDIT점수 분류에 따른 결과에서 위험 음주자(hazardous drinking)는 175명(75.1%)이었고, 위해 음주자(harmful drinking)는 26명(11.2%)이었으며, 알코올 의존자(alcohol dependence)는 32명(13.7%)으로 확인되어 고위험 음주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 2) 음주동기는 사교 동기가 가장 높았으며( $M=3.55$ ,  $SD=.816$ ), 그 다음으로 대처동기( $M=2.75$ ,  $SD=.986$ ), 고양동기, 동조동기 순으로 높아 여대생의 음주동기는 긍정적 사회적 보상과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거나 제어하기 위해 마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태도 신념에서 가장 높은 항목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로 ‘약간 그렇다’의 평균( $M=1.44$ ,  $SD=1.423$ )을 보였으나 ‘이미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다’에서는 평균( $M=-.30$ ,  $SD=1.628$ )이 부정적으로 나타나 절주를 하면 이미지가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태도 신념 전체의 평균( $M=.75$ ,  $SD=.949$ )은 ‘약간 그렇다’로 나타났다.
- 4) 사회 규범적 인식의 절주 찬성에서는 부모님이 가장 높은 평균( $M=1.17$ ,  $SD=1.671$ )을 보였고, 그 다음은 남자친구( $M=0.69$ ,

SD=1.777)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친구, 선배, 후배, 동기의 평균은 부적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특히 선배의 평균(M=-.70, SD=1.562)은 부적으로 나타나 문제 음주 여대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5) 사회 규범적 인식의 순응 동기에서는 부모님이 가장 높은 평균(M=.86, SD=1.246)을 보였고, 두 번째는 친구로(M=.45, SD=1.138) 나타났다. 후배의 경우는 평균(M=-.28, SD=1.232)이 부적으로 나타나 자신 보다 어린사람의 의견에 순응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6) 조정능력 인식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절주를 할 수 있다’의 평균(M=1.74, SD=1.397)이 가장 높았으며, ‘절주는 수행하기 쉬운 일이다’의 평균(M=1.28, SD=1.557)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하지만 ‘절주를 방해하는 술자리가 많다’(M=-.14, SD=1.780)와,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많다’(M=-.02, SD=1.591)는 부적 결과를 보였다.
- 7) 절주의도와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에서는 학년( $r=.131, p < .05$ )과 친구의 음주 횟수( $r=-.218, p < .01$ )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음주 특성과의 관계에서는 AUDIT( $r=-.253, p < .01$ )와 음주동기에서 고양( $r=-.287, p < .01$ ), 대처( $r=-.259, p < .01$ ), 사교 동기( $r=-.156, p < .05$ )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 규범적 인식의 절주 찬성( $r=.223, p < .01$ )과 조절 능력 인식( $r=.380, p < .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 8) 절주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지각된 조절 능력 인식의 회귀계수가( $\beta=.363, t=5.940, p < .001$ )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 규범적 인식의 절주 찬성( $\beta=.221, t=3.7121, p < .001$ )과 친구의 음주횟수 ( $\beta= -.132, t=-2.163, p < .05$ )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문제 음주 여대생의 음주행태가 위험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음주동기가 사교적인 목적과 대처의 수

단으로 음주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음주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님과 남자친구의 절주찬성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므로 주변의 가까운 사람의 절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음주에 관대한 인식은 여대생에게도 다르지 않으며, 술 마시는 것을 하나의 사회생활의 도구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절주 의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조절능력인식이 높을수록, 주변의 절주 찬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절주 의도가 높아지고, 친구의 음주횟수는 많을수록 절주 의도는 부적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음주에 취약한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으므로 여성의 음주는 절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음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빠른 시기부터 음주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음주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이 같이 변화되어야 건전한 음주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앞으로 여대생을 위한 맞춤형 절주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실제 대학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절주 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하다.

##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본 연구 결과 문제 음주 여대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측정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 2) 본 연구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문제 음주 여대생에게 절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절주 의도 및 절주 행동 변화까지 측정하는 중재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고유미, 현명호. (2009). 대학생의 음주억제, 음주거부 자기 효능감과 음주 행동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 262.
- 국민건강영양조사 (2011). 2012년 보도자료.
- 김용석. (1999). 국내외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도구의 비교를 통한 한국성인의 알코올사용장애에 관한 역학 조사. *한국사회복지학*, 37, 67-88.
- 김윤경. (2008). *계획적 행위이론에 근거한 남성 직장인의 절주 행위 모형 구축*.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광주.
- 김인석. (2001). *음주 및 음주문제의 위험요인과 취약성 요인에 관한 구조 방정식 모델링*.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김인석, 이연희. (2003). 성격, 주변인의 영향, 음주동기가 음주 및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75-95.
- 김인석, 현명호, 유제민. (2001). Data Mining 을 이용한 음주 및 음주문제의 위험요인과 취약성요인에 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75-95.
- 김종임, 김종성, 김정희, 김지수. (2007). 대학생의 음주 정도, 음주동기가 음주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14(3), 382-390.
- 김희경, 최은숙, 안정선. (2004). 여대생의 음주행위 영향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0(2), 205-216.
- 나윤경, 권인숙. (2010). 한국과 대만의 대학문화 비교: 위계와 성차별, 폭력의 근대적 징후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7(1), 145-183.
- 박현정, 박종민. (2011). 수정 계획행동 이론의 적용을 통한 대학생 금주 행동 의도의 사회 심리적예측. *한국광고홍보학보*, 13(4), 125-154.
- 서경현, 김성민, 정구철. (2006).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성별, 음주 가족력과 대학생의 음주동기 및 문제 음주. *한국심리학회지*, 11(3), 607-626.

- 심성욱, 이진우, 손영근. (2009). 여대생 절주캠페인 전략 수립을 위한 음주 행동 영향요인 분석: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여대생 음주행동 이해. *한국광고홍보학회*, 11(1), 204-247.
- 신행우. (1999). 음주동기와 음주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5(1), 93-109.
- 양난미. (2010). 성, 음주 정도에 따른 대학생의 음주문제 이해. *상담학 연구* 11(4), 1707-1727.
- 유혜라. (2000). 일부 대학생이 절주행위 의도와 관련요인 조사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1(2), 347-357.
- 이미형. (2009). 우리나라 여대생의 음주 실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알코올과학회*, 1, 135-136.
- 이선영, 정의철. (2012). 대학생의 문제성 음주의도 및 예방요인에 관한 연구 : 계획된 행동이론, 관여도, 대인커뮤니케이션 의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지*, 56(2), 379-404.
- 이순희, 정승은. (2011). 여대생의 음주 경험. *여성건강*, 12(1), 1-19.
- 이정길, 김종성, 정진규, 최태근, 유영일. (2011). 대학생들의 문제 음주 선별에 대한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의 유용성. *가정의학회지*. 32(1), 29-36.
- 정슬기. (2006). 대학생의 한국음주문화에 대한 인식과 음주태도가 위험음주에 미치는 영향. *한국알코올과학회지*, 7(2), 1-16.
- 차동필. (2005). 폭음행위 이해 : 계획행동 이론의 적용과 확장. *한국언론학회*, 49(3), 346-372.
- 차유희. (2012). *여성 직장인의 음주의도에 미치는 요인*.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서울
- 천성수, Toben F. Nelson, Easton A. Reid ,Henry Wechsler. (2011). 미국과 한국 대학생들의 음주와 폭음에 대한 인식 비교.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2(3), 29-41.
- 천성수, 이주열, 이용표, 송창호. (2002). 대학생 문제 음주예방을 위한 홍



- 보·교육프로그램운용 평가. *한국알코올과학회지*, 3(1), 53-87.
- 탁진국. (2000). 개인의 성격특성과 생활사건이 음주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73-83.
- 하정, 탁진국. (1998). 음주동기 척도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9, 57-79.
- 한소영, 이민규, 신희천. 2005. 남녀 대학생의 음주 문제 위험요인: 사회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17(4), 1003-1019.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1). 대학생과 성인의 음주행태 비교연구.
- 한금선, 양승희, 전겸구. (2003).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가 여대생의 스트레스 증상과 음주관련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8(3), 565-579.
- 한덕용, 이민규. (2001).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음주운전 행동의 설명. *대한심리학회지*, 15(2), 141-158.
- Ajzen, I., & Fishbein, M.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http://worldcat.org/isbn/0201020890>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Ajzen, Driver. (1991). Predic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from Behavioral, Normative and Control Beliefs: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Leisure Sciences*, 13, 185-204.
- Anderson , C., Johnsson, K. O., et al., Berglund, M., Ojehagen, A. (2007). Alcohol involvement in swedish university freshmen related to gender, age, serious relationship and family history of alcohol problems. *Alcohol & alcoholism*, 42, 448-455.

- Babor TF, DE LA Fuente JR, Saunders J and Grant M. (1989).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Guidelines for Use in the primary Health Care. *WHO Publication*, 894.
- Buettner, C. K., Andrews, D. W., & Glassman, M. (2009). Development of a student engagement approach to alcohol prevention: The pragmatics project.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8(1), 33-37.
- Chatzisarantis NL, Hagger MS. (2007).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Pers Soc Psychol Bull.* 33(5):663-76.
- Cooper, M. L. (1994). Motivational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 117-128.
- Cooke R, Sniehotta F, Schuz B. (2006). Predicting binge-drinking behaviour using an extended TPB: examining the impact of anticipated regret and descriptive norms. *Alcohol and alcoholism*, 42(2), 84-91.
- Cooke R, French DP. (2011). The role of context and time frame in moderating relationships with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Psychol Health*, 26(9),1225-1240.
- Cox WM, Klinger E. (198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 Abnorm Psychol*, 97, 168-180.
- Cox WM, Klinger E. (1990). Incentive motivation, affective change, and alcohol use: A model, in Why People Drink. *Cox WM ed*, 291-311. *Gardner Press, New York*.
- Devon Jersild. (2002). Alcohol in the Vulnerable Lives of College Women. *Chronic of higher education*, 48(38), 8-12.
- David J. White, Helene Raskin. (1991). Society, culture, and drinking patterns reexamined. Alcohol, culture, and social control

- monograph series., *Piscataway, NJ, US: Rutgers Center of Alcohol Studies*, 263-284.
- Elliott MA, Ainsworth K. (2012). Predicting university undergraduates' binge-drinking behavior: a comparative test of the one- and two-component theories of planned behavior. *Addictive behaviors*. 37(1), 92-101.
- Fleming, Kristen L. Barry and Roderick Macdonald. (1991).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in a College Sample. *Substance Use & Misuse* 26,(11), 1173-1185.
- Gardner B, de Bruijn GJ, Lally P, (2012). Habit, identity, and repetitive action: a prospective study of binge-drinking in UK students. *Br J Health Psychol*. 17(3), 565-81.
- Gomberg. (1991). Edith S. Lisansky, *Women and alcohol: Psychosocial aspects*.
- Hagger MS, Lonsdale AJ, Hein V, Koka A, Lintunen T, Pasi H, Lindwall M, Rudolfsson L, Chatzisarantis NL. (2012). Predicting alcohol consumption and binge drinking in company employees: an application of planned behaviour and self-determination theories.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7(2), 379-407.
- Heck EJ, Lichtenberg JW. (1990). Validity of the CAGE in screening for problem drinking in college students. *J Coll Stud Dev*, 31, 359-364.
- Jamison J. (2008). Myers LB, Peer-group and price influence students drinking along with planned behaviour. *Alcohol and alcoholism (Oxford, Oxfordshire)*. 43(4), 492-7.
- Johnston, Kim L. & White, Katy M. (2003). Binge-drinking: A test of the role of group norms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Psychology and Health, 18, 63-77.*

- Karen Glanz, Barbara K. Rimer, Frances Marcus Lewis. (2009). 건강 행동과 건강교육(유태균, 유혜라, trans.). 서울. 군자.(original work published 2002).
- Kendler, Myers, Maes, Keyes.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Common Internalizing Psychiatric Disorders and Mental Well-Being. *Behav Genet, 41, 641-650.*
- Kokotailo PK, Egan J, Gangnon R, Brown D, Mundt M, Fleming M. (2004). Validity of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in college students. *Alcohol Clin Exp Res. 28(6), 914-20.*
- Michael J. Bohn, Thomas F. Babor, Henry R. Kranzler. (1995).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Validation of a Screening Instrument for Use in Medical Settings. 56(4), 423-432.*
- Mullan B, Wong C, Allom V, Pack SL. (2011). The role of executive function in bridging the intention-behaviour gap for binge-drinking in university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36(10), 1023-6.*
-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2005). *The physician's guide to helping patients with alcohol problem. Bethesda(MD):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 Norman, P., Bennett, P., & Lewis, H. (1998). Understanding binge drinking among young people: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Health Education Research, 13(2), 163-169.*
- Norman P, (201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binge drinking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assessing the impact of habit

- strength. *Addictive behaviors*. 36(5), 502-7.
- O'Malley & Johnston. (2002). Epidemiology of Alcohol and Other Drug Use among American College Students. *University of Michigan, P.O. Box 1248, Ann Arbor, Michigan*, 48. 106-1248.
- Pauley, P. M., Hesse, C. (2009).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stress on drinking behaviors in a college student ample. *Communication studies*, 60(5), 493-508.
- Sarigiani, Ryan, Peterson (1999). Prevention of high-risk behaviors in adolescent wome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5(2), 109-119.
- Slutske. Knight, Wechsler, Kuo, Seibring, Weitzman, &. Schuckit (2002); Alcohol abuse and dependence among U.S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3), 263-270.
- Smerz KE, Guastello SJ. (2008). Nonlinear Dynamics Psychol Life Sci Nonlinear dynamics, psychology, and life sciences. *Nonlinear Dynamics Psychol Life Sci*. 12(2), 205-24.
- Smith DS, Collins M, Kreisberg JP, Volpicelli JR, Alterman AI. (1987). Screening for problem drinking in college freshmen. *J Am Coll Health*. 36(2):89-94.
- Taylor, S. E., Peplau, L. A. & Sears, D. O. (2000) Social Psychology. *1 Sep 2007 - Racism in America.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32 . 19.
- Terry, D. J., Hogg, M. A. (1996). Group norms and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A role for group identif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776-793.
- Todd J, Mullan B. (2011).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nd prototype willingness model to target binge drinking in female undergraduate university students. *Addict Behav*. 36(10),

980-6.

Wechsler & Kuo. (2000). Binge Drinking and American College Student: What's Five Drink?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5(4), 287-291.

WHO. (2001).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International guide for Use in Primary Care. Second edition. *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Substance Dependence*.

## 부록

### 부록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AUDIT

N= 233

	Characteristics	Category	n	(%)
Drinking amount	How often do you have a drink containing alcohol?	Never	0	0
		Monthly or less	28	12.0
		2 to 4 times a month	157	67.4
		2 to 3 times a week	44	18.9
		4 or more times a week	4	1.7
	How many drinks containing alcohol do you have on a typical day when you are drinking?	Less than Half of Sozu	21	9.0
		Over a bottle of Sozu	92	39.5
		Less than 1.5 bottles of Sozu	83	35.6
		Sozu less than 2.5 bottles	27	12.0
		More than 2.5 Bottles of Sozu	10	4.3
	How often do you have SOJU 1 bottle or more drinks on one occasion?	Never	9	3.9
		Less than monthly	87	37.8
		Monthly	82	35.2
Weekly		32	13.7	
Drinking behavior	How often during the last year have you found that you were not able to stop drinking once you had started?	Never	110	47.2
		Less than monthly	76	32.6
		Monthly	31	13.3
		Weekly	14	6.0
		Daily or almost daily	2	0.9
	How often during the last year have you failed to do what was normally expected from you because of drinking?	Never	87	37.3
		Less than monthly	108	46.4
		Monthly	47	20.2
		Weekly	18	7.7
		Daily or almost daily	3	1.3
	How often during the last year have you needed a first drink in the morning to get yourself going after a heavy drinking session?	Never	203	87.6
		Less than monthly	16	6.9
		Monthly	10	4.3
Weekly		3	1.3	
Daily or almost daily		1	0.4	
Psycho-social problem	How often during the last year have you had a feeling of guilt or remorse after drinking?	Never	42	18.0
		Less than monthly	112	48.5
		Monthly	58	24.9
		Weekly	11	4.7
	How often during the last year have you been unable to remember what happened the night before because you had been drinking?	Daily or almost daily	10	4.3
		Never	77	33.3
		Less than monthly	101	43.2
		Monthly	40	17.1
	Have you or someone else been injured as a result of your drinking?	Weekly	11	4.7
		Daily or almost daily	4	1.7
		No	168	72.5
		Yes, but not in the last year	26	11.2
		Yes, during the last year	39	16.7
Has a relative or friend or a doctor or another health worker been concerned about your drink-ing or suggested you cut down?	No	149	64.4	
	Yes, but not in the last year	29	12.4	
	Yes, during the last year	55	23.6	

부록2.

No. \_\_\_\_\_

## 연구 참여 동의서

여대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디나은 음주예방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대생의 음주문제에 관한 음주동기와 절주의도 등을 알아보는 것으로 그 관련 요인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향후 여대생의 음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빠짐없이 솔직히 응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요시간은 10분~15분 정도이며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분석을 위한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주어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서명 : \_\_\_\_\_ 날짜 : /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 보호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 연구자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이옥의 석사수료생
- 연구자 연락처 : 010-2990-2205



[음주 측정 도구(AUDIT)]

■ 다음은 음주행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세히 읽고 해당 항목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p>1. 술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마시지 않는다( )          ② 월 1회 미만( )          ③ 월 2~4회( )          ④ 주 2~3회( )          ⑤ 주 4회 이상( )</p>	<p>6. 지난 1년간, 과음 후 다음날 아침 정신을 차리기 위해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          ② 월 1회 미만( )          ③ 월 1회( )          ④ 주 1회( )          ⑤ 거의 매일( )</p>
<p>2. 술을 마시는 날은 보통 한 몇 잔을 마십니까?          ① 소주 반 병 이하( )          ② 소주 한 병 이하( )          ③ 소주 1.5병 이하( )          ④ 소주 2.5병 미만( )          ⑤ 소주 2.5병 이상( )</p>	<p>7. 지난 1년간, 음주 후 술을 마신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          ② 월 1회 미만( )          ③ 월 1회( )          ④ 주 1회( )          ⑤ 거의 매일( )</p>
<p>3. 한 번의 술좌석에서 소주 1병 초과로 마신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없다( )          ② 월 1회 미만( )          ③ 월 1회( )          ④ 주 1회( )          ⑤ 거의 매일( )</p>	<p>8. 지난 1년간 술이 깬 후에 취중의 일을 기억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          ② 월 1회 미만( )          ③ 월 1회( )          ④ 주 1회( )          ⑤ 거의 매일( )</p>
<p>4. 지난 1년간, 일단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자제가 안 된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          ② 월 1회 미만( )          ③ 월 1회( )          ④ 주 1회( )          ⑤ 거의 매일( )</p>	<p>9. 당신의 음주로 인해 본인이 다치거나 또는 가족이나 타인이 다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었다( )          ② 있지만, 지난 1년간은 없었다( )          ③ 지난 1년간 있었다( )</p>
<p>5.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          ② 월 1회 미만( )          ③ 월 1회( )          ④ 주 1회( )          ⑤ 거의 매일( )</p>	<p>10. 가족이나 의사 또는 주변에서 당신의 음주에 대해 걱정을 하거나 술을 끊거나 줄이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었다( )          ② 있지만, 지난 1년간은 없었다( )          ③ 지난 1년간 있었다( )</p>

[음주동기]

▣ 다음에 제시되는 상황들을 하나하나 떠올려보시고, 지난 1년간 각각의 상황에서 당신은 얼마나 자주 술을 마셨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 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마시지 않는다	거의 마시지 않는다	가끔 마신다	자주 마신다	거의 항상 마신다
시원하거나 짜릿한 맛을 느끼고 싶을 때	1	2	3	4	5
생활의 활력을 얻고 싶을 때	1	2	3	4	5
세상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느끼고 싶을 때	1	2	3	4	5
지루하거나 심심해서 기분전환을 하고 싶을 때	1	2	3	4	5
슬플 때	1	2	3	4	5
스트레스 받을 때	1	2	3	4	5
화가 났을 때	1	2	3	4	5
기분이 울적할 때	1	2	3	4	5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싶을 때	1	2	3	4	5
모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을 때	1	2	3	4	5
사람들과 좀 더 어울리고 싶을 때	1	2	3	4	5
모임을 더 즐겁게 만들고 싶을 때	1	2	3	4	5
술 생각은 없었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1	2	3	4	5
술 생각은 없었지만, 술 마시는 친구들의 그룹에 끼고 싶을 때	1	2	3	4	5
술 생각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호감(인정)을 얻고 싶을 때	1	2	3	4	5
술 생각은 없었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1	2	3	4	5

**[태도 신념]**

▣ 다음은 절주 관련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부합되는 항목에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주를 하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돈을 절약할 수 있다	-3	-2	-1	0	1	2	3
건강을 지킬 수 있다	-3	-2	-1	0	1	2	3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3	-2	-1	0	1	2	3
학교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다	-3	-2	-1	0	1	2	3
생활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다	-3	-2	-1	0	1	2	3
이미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3	-2	-1	0	1	2	3
인간관계가 나빠진다	3	2	1	0	-1	-2	-3
분위기를 망친다	3	2	1	0	-1	-2	-3

**[사회 규범적 인식(절주 찬성)]**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하나에 √하여 주십시오.

사회적 규범인식(1)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절주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	-3	-2	-1	0	1	2	3
나의 형제는 내가 절주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	-3	-2	-1	0	1	2	3
나의 남자 친구는 내가 절주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	-3	-2	-1	0	1	2	3
나의 친구는 내가 절주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	-3	-2	-1	0	1	2	3
나의 선배는 내가 절주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	-3	-2	-1	0	1	2	3
나의 후배는 내가 절주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	-3	-2	-1	0	1	2	3
나의 과 동기는 내가 절주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	-3	-2	-1	0	1	2	3

**[사회 규범적 인식(순응 동기)]**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하나에 √ 하여 주십시오.

사회적 규범인식(2)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나는 부모님의 의견에 적극 따르려한다.	-3	-2	-1	0	1	2	3
나는 형제의 의견에 적극 따르려한다.	-3	-2	-1	0	1	2	3
나는 남자친구의 의견에 적극 따르려한다.	-3	-2	-1	0	1	2	3
나는 친구의 의견에 적극 따르려한다.	-3	-2	-1	0	1	2	3
나는 선배의 의견에 적극 따르려한다.	-3	-2	-1	0	1	2	3
나는 후배의 의견에 적극 따르려한다.	-3	-2	-1	0	1	2	3
나는 과 동기의 의견에 적극 따르려한다.	-3	-2	-1	0	1	2	3

**[조정능력 인식]**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하나에 √ 하여 주십시오.

조정능력 인식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절주를 방해하는 술자리가 많다.	-3	-2	-1	0	1	2	3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많다.	-3	-2	-1	0	1	2	3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절주를 할 수 있다.	3	2	1	0	-1	-2	-3
절주는 수행하기 쉬운 행위이다.	3	2	1	0	-1	-2	-3

**[절주 의도]**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하나에 √ 하여 주십시오.

절주 의도	매우	대체로	약간	보통 이다	약간	대체로	매우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그렇다		
나는 한 달 안에 절주할 의도가 있다	-3	-2	-1	0	1	2	3

▣ 다음을 읽고 해당되는 사항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만     세)
2. 귀하는 현재 몇 학년 입니까?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     ④ 4학년( )
3.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인·문 사회계열( ) ② 이·공계열( ) ③ 예·체능계열( ) ④ 보건의료( )
4. 귀하는 흡연을 하십니까?  
① 아니오( )     ② 평상시에 흡연한다( )     ③ 가끔 흡연한다( )  
④ 과거에는 흡연을 하였지만 지금은 끊었다( ) ⑤ 술 마실 경우에만 흡연( )
5. 귀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6. 귀하는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7. 귀하의 한 달 용돈 수준은 친구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편입니까?  
① 매우 많은 편이다( )     ② 많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은 편이다( )     ⑤ 매우 적은 편이다( )
8. 귀하의 동아리 활동 참여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전혀 안 한다( ) ② 조금 한다( ) ③ 보통 한다( ) ④ 많이 한다( )
9. 귀하의 부모님께서서는 음주를 하십니까?  
① 전혀 안 하신다( )     ② 한 분만 하신다( )     ③ 두 분 다 하신다( )
10. 귀하가 만나는 친구의 음주 횟수는?  
① 주 2회 이상( )     ② 주 1회( )     ③ 월 1회( )  
④ 월 2회( )     ⑤ 전혀 안한다( )
11. 귀하의 학교 생활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불만족하다( ) ② 불만족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다( )     ⑤ 매우 만족하다( )
12. 귀하의 학업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심하다( )     ② 심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심하지 않다( )     ⑤ 전혀 심하지 않다( )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Abstract

## Problem Drinking in Female College Students: Characteristics and the Intention to Drink Moderately

Okeui Lee

College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Insook Lee, Ph. 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drink moderately *versus* problem drinking in female students and to deter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rinking characteristics by evaluating descriptive correlations.

The study subjects were 233 female college students who had AUDIT scores of over six points,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at four colleges in Seoul in January and February 2013.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questionnaire by researchers.

1. AUDIT scores of the study subjects according to the WHO guidelines classified 75.1% at the hazardous drinking level, 11.2% at the harmful drinking level, and 13.7% at the alcohol dependence level.
2. Drinking motives were confirmed in order to obtain a positive

reward drinking social motives( $M=3.55$ ,  $SD=.816$ ) and to reduce the negative emotions coping motives( $M=2.75$ ,  $SD=.986$ )

3. Shows the correlation between intend to drink moderately in general grade ( $r .130$ ,  $p <.05$ ) and number of friends drinking ( $r - .208$ ,  $p <.01$ ) was a significant variable in the drinking characteristics, AUDIT ( $r - .253$ ,  $p <.01$ ) and enhancement motives ( $r - .287$ ,  $p <.01$ ), coping motives ( $r - .259$ ,  $p <.01$ ), social motives ( $r - .156$ ,  $p <.05$ )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the social pressure(supported)( $r .223$ ,  $p <.01$ ) and social pressure(compliance) ( $r .131$ ,  $p <.05$ ), supported \* compliance motivations ( $r .132$ ,  $p <.05$ ), and perceived self-control ( $r .380$ ,  $p <.01$ )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4. In the result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intend to moderate drinking and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s, that were perceived self-control ( $\beta .363$ ,  $t 5.940$ ,  $P <.001$ ), the social pressure( $\beta .221$  ,  $t 3.712$ ,  $P <.001$ ), and number of friends drinking ( $\beta - .132$ ,  $t -2.163$ ,  $P <.05$ ), and their explanatory was 21.5%.

Considering these results, developing an intention to drink only moderately in problem-drinking female college students requires an increase in coordination capabilities, support from surrounding people, and finally to change the drinking culture of the peer group.

Society as a whole, as well as our general drinking culture, should change. We must provide adequate and early education about the appropriate drinking of alcohol and there is a need to raise

awareness of the risks. A wide range of alcohol-education programs should address the characteristics of problem drinkers and should include all of the people around the problem drinker.

**Key words :** Problem Drinking in Female College Students, Drinking Motives, Intention to Drink Moderately

**Student Number :** 2011 - 20473





## 감사의 글

대학원 진학할 당시 잘 해낼 수 있을까 은근히 걱정도 많이 했는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논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을 마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학위 과정과 논문 전반에 걸쳐 부족한 저를 끊임없는 관심과 가르침으로 학문의 길로 끝까지 이끌어주신 이인숙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성품과 제자에 대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던 높은 인품에 존경을 표합니다. 교수님의 열정적인 삶과 많은 가르침들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 간직하겠습니다. 논리적인 사고와 정확한 핵심을 깨우쳐주시고 연구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주신 윤순영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흡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시어 실수한 부분이 없도록 확인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방경숙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제게 공부하도록 동기를 불어넣어주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달려와 도와주신 최재현 선생님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하면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정성은 소장님과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동료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기꺼운 마음으로 설문을 작성해주신 여대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조사에 도움을 주신 한성림 교수님과 이아론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는 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주셨던 선, 후배, 동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논문 진행과정 동안 항상 곁에서 같이 연구하고 끝까지 도움과 조언을 아낌없이 나누었던 동기 유지현 선생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언제나 용

기와 적절한 조언을 주었던 박언아 선생님, 현혜순 선생님, 오희선 선생님,  
문현정 선생님, 고다미 선생님, 박정희 선생님, 정미라 선생님 모두 감사드  
립니다.

그리고 일과 학업을 핑계로 집안에 충실하지 못했는데도 아무 말 없이 묵  
묵히 참아주고 항상 곁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나의 보배 현지, 은지, 남  
편에게도 깊은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많  
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잊지 않고, 늘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이옥의 올림